

신당·무소속 강세... 민주당 기초의원도 못내

3곳 단체장 신당 2·무소속 1명 당선 장성 前군수 부인 동정·조직표 승리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광주·전남 지역 재·보궐선거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민주당의 몰락을 보여줬다.

세 곳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신당이 두 자리, 무소속 후보가 한 자리를 차지했다. 또 광주에서 치러진 두 곳의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신당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은 어느 선거에서도 1위를 차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무소속 후보에게까지 밀려 대부분 3위를 차지하는 등 당세 약화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당이 최근 대선 과정에서 후보단일화를 거부하면서 지역 민심을 잃었을 뿐 아니라 소속 이인제 후보가 득표율 1%에도 못 미치는 표를 얻으면서 동반 부진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런 결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심을 반영하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정국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수 보궐선거=신당 김충식 후보와 무소속 이석재 후보가 개표 내내 양강 구도를 그리며 경쟁한 끝에 김 후보가 군수

로 당선됐다. 김 후보는 해남군에서 총무·재무과장, 기획예산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군정 전문가임을 내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대선에서의 선거구도까지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석재 후보는 3선 도의원으로 전남도의회 부의장을 지낸 이력을 내세우며 군민에게 상당한 지지를 얻었으나 조직력에서 밀리며 석패했다.

◇장성군수 재선거=신당과 민주당 등 양대 정당 후보에 무소속 후보 2명이 도전장을 던져 4자 구도로 진행된 이번 재선거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신당 김한중 후보와 무소속 이청 후보 간 양자대결이 펼쳐진 끝에 이 후보의 당선으로 끝이 났다.

유두석 전 군수의 부인인 이 청 후보가 동정표와 자체 조직표를 바탕으로 주요 정

당간 치열한 대선 구도의 틀을 깨고 승리를 얻어냈다. 신당 김 후보는 조직표를 앞세워 승리를 자신했으나 유 전 군수의 군수직 상실에 대한 동정표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렵게 패배했다.

◇장흥군수 재선거=신당 이명흠 후보가 무소속 김성 후보가 양강 구도를 그리며 개표 마지막까지 승부를 점칠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이 후보가 신승했다.

이 후보가 9급 공무원에서 장흥부군수에 이르기까지 지방행정조직을 두루 섭렵한 경험을 내세워 표심을 파고들었다는 평가다. 특히 신당의 조직력도 승리의 한 요인이 됐다. 반면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2천여 표 차로 석패한 무소속 김성 후보는 그동안 닦아온 갈고 닦은 인맥을 통해 승리를 노렸으나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지방의원=두 명의 광역의원과 네 명의 기초의원을 다시 뽑는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은 큰 힘을 쓰지 못했다.

광주 동구 제1선거구 광주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신당 양혜령 후보가 민주당 김종민 후보를 눌렀으며 광주 북구 제3선거구 광주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신당 전우근 후보가 2위를 차지한 무소속 송태중 후보를 제치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민주당 후보들은 힘 한번 크게 써보지 못하고 신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밀렸다.

전남지역 4개 선거구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에도 신당이 1곳, 무소속이 3곳에서 승리한 반면 민주당 후보는 모두 패배했다.

/서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9일 장성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이청 당선자가 남편 유두석 전 군수와 만세를 부르고 있다. /위정희기자 jrwi@kwangju.co.kr



장흥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대통합신당 이명흠 당선자가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김충식 해남군수 당선자가 19일 밤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군민 화합 군정 최우선 과제”

이 청 장성군수 당선자

“중단없는 장성 재창조를 위해 유두석 전 군수가 추진했던 각종 현안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청(50) 장성군수 당선자는 19일 개표결과 발표 직후 ‘군민 화합’을 향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남편인 유 전 군수의 군수직 상실에 따라 재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지역 민심이 크게 분열됐기 때문이다. 이날 이 당선자는 신당의 김한중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장성군 최초의 여성 군수가 됐다.

이 당선자는 “오후 8시를 전후로 2위와의 표차가 600여표 차이로 벌어졌을 때 승리를 예감했다”며 “흠여진 민심을 하나로 합치라는 군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국가개발촉진지구 사업, 독거노인 사랑의 집짓기 등 유 전 군수가 추진한 사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또 “5만 군민들의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무소속 여성 후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면서 “신의의 경쟁을 해온 상대 후보들의 공약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경기 군포중학교, 귀인중학교 등에서 27년간 교직에 종사하다 지난해 2월 유 전 군수의 출마를 돕기 위해 동반 귀향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세일즈 행정 펼쳐 나갈 것”

이명흠 장흥군수 당선자

“공직자들과 함께 군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자세로 책임지는 군정을 꾸리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인 이명흠(58) 장흥군수 당선자는 “이제 장흥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일즈 군수, 세일즈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을 하며 군민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았고 깊은 자성을 하게 됐다”며 “정남진 장흥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심고 더 나아가 문화와 관광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정남진 장흥을 만들겠다”고 당선 포부를 밝혔다.

이 당선자는 “장흥에도 2곳의 산단이 계획돼 있는 만큼 차질 없는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윈스톱 행정 체제로 친환경 기업을 유치해 낙후된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또 “여성과 노인, 장애우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도 소홀하지 않겠다”면서 “선거 기간동안 군민 여러분에게 했던 ‘행복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당선자는 전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 여수시 자치행정 국장과 장흥군 부군수 등을 지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반목과 갈등 사슬 끊을 터”

김충식 해남군수 당선자

“지지를 보내주시는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오랫동안 혼란을 겪어 온 군정을 수습하고 반목의 사슬을 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해남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통합신당 김충식(57) 당선자는 “5회 연속 재·보선 악순환”으로 주민 간, 공직자 간에 생긴 반목을 해소하기 위해 능력중심의 인사를 펼치고, 주민참여형 재정운영을 확대해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남군에서 총무과장, 기획예산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김 당선자는 재직 중 추진했던 해남종합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남도문화테마파크’를 조성해 관광활성화와 지역내 불균형 해소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김 당선자는 “변화(Change)·도전(Challenge)·청렴(Clean) 등 3C운동을 해남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해 ‘살고 싶은 해남’,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 내겠다”며 “끝까지 성원해 주신 군민들을 위해 전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해남을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해남 중·고교를 거쳐 광주대학교를 졸업한 김 당선자는 30여 년 동안 해남군청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서 근무한 행정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해남=박정욱·인현주기자 jopark@kwangju.co.kr

12·19 재·보선 당선자

◇기초단체장 ★는 당선자

장성군수 이 청 (50·무소속)	
김한중(신당)	10,266
김홍주(민주)	4,304
김양수(무)	2,243
★ 이 청 (무)	11,787

장흥군수 이명흠 (58·신당)	
★ 이명흠(신당)	11,486
백도선(민주)	3,925
김성 (무)	10,588

해남군수 김충식 (57·신당)	
★ 김충식(신당)	18,435
정두재(민주)	10,385
이석재(무)	15,779

◇광역의원

광주시 동구 양혜령 (45·신당)	
★ 양혜령(신당)	15,517
백일선(한)	1,224
김종민(민주)	7,543
구봉우(무)	1,181

광주시 북구3 전우근 (42·신당)	
★ 전우근(신당)	14,417
박만수(한)	1,326
김조순(민주)	7,861
김상룡(무)	1,818
송태중(무)	12,535

◇기초의원

나주시 가 김중은 (49·무소속)	
최영준(신당)	5,259
김해원(민주)	4,194
★ 김중은(무)	5,692

영암군 라 김영환 (50·신당)	
★ 김영환(신당)	4,369
최병천(민주)	3,686

영광군 나 장기소 (45·무소속)	
김영철(신당)	3,540
천영근(민주)	1,839
김경현(무)	3,334
김천석(무)	139
이상근(무)	2,198
★ 장기소(무)	3,866

함평군 가 정창우 (43·무소속)	
임용수(신당)	3,934
이희동(민주)	2,736
★ 정창우(무)	4,048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원칙외선 플라자입 할당해! 학력 조절과 원거리 입세 난항까지

원칙외선 플러이드 할당해! 인기 하터데로 별물이 있습니다.

고효율의 특어 기술력! 본래 소용 저감 장치 채택

무등산업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인공수목·보인선반·바탕·정식스전·마를 들어 차려드립니다.

다양한과

☎10011383-8283